

4월의 기도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1:2)'는 말씀처럼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 내과의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말의 에너지

일본 오사카에서 30세가 조금 넘는 젊은 목회자의 간증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뇌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 뇌 중심에 암이 자라기 때문에 수술할 방법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눈도 깜박거릴 수 없고, 씹을 수도 없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했는데, 세상 노래나 텔레비전을 틀어 놓으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누님이 30년 전 저, 조용기 목사가 일본에서 가졌던 부흥회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틀어주는데 이 테이프를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구역질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테이프를 수 백 번 반복해서 듣는데 그 설교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친다는 내용을 듣고 교회 나간 적 없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치료받았다" 그리고 아프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기 마음속에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불러 보자는 생각이 들어 잠자기 전에 "나의 눈이 나았다. 눈은 건강하다"라고 선포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이튿날 잠에서 깨니 눈이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신기해서 다음날은 "내일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서 입술로 말할 수 있다.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튿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가지씩 기도하여 수족이 다 움직이게 되고 테이프를 들은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 목사가 되었고, 저에게 간증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써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어 치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것은 현재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잘될 것을 보고 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될 것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하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March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4년 캐나다 토론토 성회"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캐나다 미션페스트 토론토 성회가 2004년 3월 12,13일 양일간 캐나다에 있는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토 미션페스트(대표 메리 루시 스포크)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캐나다 토론토를 비롯해 오타와, 몬트리올, 밴쿠버 지역에서 목회자와 실업인, 평신도 등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땅끝까지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5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치료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선교단체가 직접 참여해 세계선교에 대한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미션페스트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세계선교축제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성회에 주강사로 나선 조용기 목사는 "믿음의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연인원 1만2000여 명이 참석한 미션페스트 성회에 진행된 말은 빌 피티지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80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

교회 담임 목사이자, 전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넘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을 지도한 주의 종"이라고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미션페스트는 이번 성회를 위해 진행자 전원이 1년 동안 릴레이 기도를 벌였다고 한다.

미션페스트 대표 메리 루시 스포크 씨는 "2004 토론토 미션페스트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토론토에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깨우고,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 침체된 캐나다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개최 소감을 밝혔다.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05년 미국 시애틀 성회"



2005년 3월 1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성회에서 DCEM(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총재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했다. 찬양과 고백의 시간이 30여 분 진행될 때 즈음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를 주최한 크리스천 페이스 센터 담임 캐시 트리트 목사를 비롯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내외와 강사진들이 입장해 참석자들

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

찬양과 경배 시간이 끝난 후 캐시 트리트 목사가 등단했다. 그는 먼저 'CFC(Christian Faith Center) 25/50 셀러브레이션(Celebration)'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강사인 조용기 목사가 전세계에 끼친 영향력을 이야기하며 "내가 전도, 재정, 질병 등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셨으며, 고난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 영적인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참석자들의 기립 박수를 받고 강단에 등단한 조용기 목사는 이날 "믿음의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전하며 "확실한 목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 꿈이 있어

야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조용기 목사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말씀을 녹음기에 녹음을 하거나 노트에 기록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의 강력한 선포가 이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뜨겁게 화답했다. 설교 후 캐시 트리트 목사는 조용기 목사에게 참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자 조용기 목사는 참석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 맡기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지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1~3)

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고 그 대신 저는 너에게 쉬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신 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살다보면 예레미야처럼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이요, 나갈 길이 없는 감옥 안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제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채플에 모여 ‘어찌해야 좋을지 저는 알 수 없도다.’ 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가 주님께서 불광동으로 인도해서 천막 교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 저는 한평생을 병약함과 싸웠습니다. 폐병 3기에서 일어났지요, 심장병으로 고생했지요, 장염으로 고생했지요, 간이나빠서 고생했지요, 신장에 물혹이 생겨서 고생했지요, 그야말로 온 몸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니 다 치료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신유에 대하여 누구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기도가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묵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곤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다. 응답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이상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3.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파키스탄의 성회를 인도할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인데 파키스탄 정부가 성회 장소를 아주 작은 장소로 주고,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회 첫 날에 제가 마이크도 없이 설교하다 보니 하루 만에 목이 꼭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었습니다.

첫날 성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이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튿날 성회 시간이 되어 성회 장소에 갔는데 경찰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체포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가오는 경찰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체포하려 온 것은 아니구나”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몹시 아픕니다. 목사님께서 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목사님, 지금 우리 어머니가 몹시 아픕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이슬람교를 믿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병 고치려 온 것을 보니까 이제 저도 목사님께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녀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더니 그 경찰들이 손수 마이크에 전원 스위치를 넣어 주어서 성회 때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리 집회를 녹화하여 전국에 방영하고 각 신문사에서 우리 집회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기도 받으려고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약 6천 명의 결신자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는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기적을 베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3월의 성회들”



1987-03월 일본 센다이 성회



1992-03월 도미니카 성회

개최 일자	성회 명	개최 일자	성회 명
1980년 03월 03일	일본 일천만 구령의 위한 부흥성회	2001년 03월 03일 ~ 06일	워싱턴 지역 성령화 성회(미국) 달라스 대성회(미국)
1983년 03월 16일 ~ 26일	CGI 대부흥성회(네덜란드)	2002년 03월 12일 ~13일	할렐루야 대성회(미국 시카고)
1985년 03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달라스 성회	2003년 03월 13일 ~15일	북서부 중보기도대회 2003 몬트리외 전도집회
1986년 03월 20일 ~ 29일	미국 몽고메리 대성회	2004년 03월 10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성회
1987년 03월 05일 ~ 18일	PLT-TV 시청자를 위한 TV성회(미국) LA 교포들을 위한 성회(미국) 아르헨티나 성회	2005년 03월 10일 ~11일	비전 2005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미국)
1989년 03월 15일 ~21일	브라질 대성회	2006년 03월 21일	2006 오사카 지저스페스티벌(일본)
1990년 03월 27일 ~ 29일	순복음동경교회 부흥성회(일본)	2007년 03월 27일	순복음동경교회 춘계 축복성회(일본)
1991년 03월 04일 ~ 14일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 총회 및 산호세 부흥성회(미국)	2008년 03월 26일 ~30일	신유와 축복성회(한인성회, 미국) 크리스천 페이스센터 새성전 헌당예배(미국) 하와이 킹스캐더널&채플(미국)
1992년 03월 18일 ~ 21일	도미니카 성회	2011년 03월 01일	2011 홍콩 목회자 및 지도자 대성회
1993년 03월 25일 ~ 31일	남아공 복음화 대성회(남아프리카공화국) '93 아프리카 성령화 대성회(케냐)	2011년 03월 16일	순복음동경교회 34주년 축복성회
1994년 03월 09일 ~ 14일	CGI 칠레 파라과이 대성회	2012년 03월 20일 ~21일	일본 후쿠오카 성령의 임재와 치유성회 순복음동경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예배
1995년 03월 08일 ~ 09일	'95 영국 민족제자화 성회	2013년 03월 06일	2013 동북 치유 대성회(일본 센다이)
1997년 03월 18일 ~ 19일	순복음나고야 신년축복 대성회 순복음동경교회 창립 19주년 기념성회	2015년 03월 03일	순복음동경교회 축복성회
1998년 03월 26일 ~ 29일	이탈리아 시실리 성회	2016년 03월 13일 ~18일	하와이 호놀룰루 축복성회(미국)
1999년 03월 23일	두바이 성회	2017년 03월 19일 ~21일	순복음아마도 축복성회(일본)



1993-03월 케냐 성회



2003-03월 미국북서부중보기도대성회